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

이경화**

<차 례>

- I. 통합적 국어 교육의 의의
- II. <국어>와 <국어 활동>의 연계 방식
- III.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단위 구성 원리
- IV. 결론

I. 통합적 국어교육의 의의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번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의 취지로 개정 7차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의 정신에 입각하기 위해 학년군별 내용과 듣기·말하기 영역의 통합, 내용 체계의 변화 등 많은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체제는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큰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어 교과서의 체제는 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반영하는 큰 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는 1982년 고시된 제5

* 이 연구는 2011년도 한국교원대학교 연구년 교수 지원 기성회계 학술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차 교육과정기의 ‘1교과 다책’ 정책에 따른 언어기능별 분책 체제를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교과서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강화하고 문자언어 중심의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학습 내용의 중복, 언어 영역 간의 분리를 고착화시키는 점, 책 종류가 많아 저학년 학부모, 학생들이 요일마다 챙겨야 하는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통합적인 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학계와 교육 수요자들의 현실적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2011년 개정 국어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발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국어>, <국어 활동>으로 고시되었다. 최근 국어과 교육에서의 요구나 기반을 이루는 학문들의 흐름 역시 언어의 총체성을 중시하는 통합적 국어 교육 관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성격을 띤 <국어> 교과서로의 공모는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30여 년 간 사용해 온 언어기능별 분책 교과서 명칭이 통합을 강조하는 교과서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국어 교과서 사적인 면에서 매우 큰 변화라 할 만하다.

통합적 국어 교육에 관한 관점은 총체적 언어 교육(whole language)에 근거를 두고 있다. 총체적 언어 교육은 1980년대에 Goodman을 필두로 하여 등장하였다. 총체적 언어교육은 Dewey에 고무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통합적 교육 과정론에 단초를 두고 있다. 총체적 언어 교육은 1980년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거의 전 대륙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대 이후에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합적 국어 교육이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언어가 분리되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기능을 함께 학습하는 것과 더 나아가 언어 학습과 상황 맥락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관을 말한다.

통합적 국어 교육에서는 언어 활동이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울 때, 전체로서 다룰 때, 의미가 있을 때, 흥미가 있을 때, 학습자와 관련이 있을 때, 상황이 결부되었을 때, 사회적인 유용성이 있을 때,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을 때, 학습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학

습자의 수준에 맞을 때에 언어 학습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취한다 (Goodman, 1986).

좋은 교과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지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NCTE, 1990). 그런데 그동안 국어 교과서가 언어 기능별로 분책되어 있어, 통합 수업이 교사 개인의 관심과 의욕에 좌우되고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계획 단계에서 통합적 관점을 설정하게 되면 교수·학습 측면에까지 통합적 국어 교육의 실천을 보장받게 되는 시초가 된다. 따라서 통합적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설계와 구성에서부터 통합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서를 만들면 좋은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적인 언어 사용 과정에서의 통합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실제적인 언어 사용 과정에서는 언어 기능들이 분리되지 않는다. 언어는 실제의 삶 속에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엄격히 분리되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어 기능은 분리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언어 학습에서 언어 사용 기능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읽기 학습이 쓰기 학습을 촉진하고, 쓰기 학습이 말하기 학습을 촉진한다. 특정한 기능에 집중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기능이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언어 기능과 관련하여 가르침으로써 그 특정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셋째, 언어 학습의 실제적인 상황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할 수 있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상황과 관련된 것인데,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교과 간의 통합과 교과 내 통합에서도 영역 간 통합, 영역 내 통합을 기해야 한다. 실제 언어 사용 상황은 어느 한 기능, 한 상황만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동시적 사용과 학습자 내외적인 다양한 맥락을 함의하고 있다. 즉, 학습자가 사용하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상황은 어느 한 맥락이나 기능에 일대일로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언어 학습에서 다중 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언어 학습은 다른

활동과 관련지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된다. 언어란 공허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미술적 활동, 음악적 활동, 드라마 활동 등과 적절히 관련지을 때 언어 학습이 보다 재미있어지고 학습이 촉진된다.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과 관련지을 때 학습자들도 보다 재미있어 하고 적극 참여하게 된다.

다섯째, 한 제재를 가지고 온전하게 학습하는 경험을 하도록 해 준다. 통합을 통해 유사한 제재의 교과서간 나열을 줄여 긴 제재를 충분히 읽고 이에 대한 온전한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

여섯째, 언어 기능의 통합으로 학습량을 줄일 수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의 공통적인 내용을 통합하여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즉,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경험 속에서 통합되면서 총체적 언어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개발될 2011 개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통합적 국어교육 관점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합’을 핵심어로 하여 개발하는 국어 교과서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크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1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에서 통합적 국어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국어>와 <국어 활동>의 연계 방식과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단위 구성 원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국어>와 <국어 활동>의 연계 방식

<국어>, <국어 활동>의 연계 방식은 국어 교과서의 외적 체제의 한 문제이다. 국어 교과서의 외적 체제란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외적 형식과 관련되는 요소를 모두 말한다. 따라서 교과서 권 수, 판형 등의 외형적 체계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2011 개정 초등학교 <국어>와 <국어활동> 두 교과서 간의 연계 방식에만 초점을 두어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교과서 외적 체제는 어떠한가? 그동

안 초등 국어 교과서의 외적 체제에 대한 사적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명완 외, 2010).

〈표 1〉 교육과정 시기별 초등 국어 교과서의 외적 체제(책 수) 변화

시기별	교육과정 영역 구분	교과서 명칭
교수 요목기	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	한글 첫걸음, 초등 국어(바둑이와 철수), 국어(전시생활, 전시독본), 초등 글짓기
1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국어
2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국어, 쓰기(1~3학년)
3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글짓기, 글씨 쓰기)	국어
4차	표현·이해, 언어, 문학	바른생활(1, 2학년 통합교과), 국어(3학년부터)
5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6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1-3학년)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3권) (4-6학년) 말하기·듣기·쓰기, 읽기(2권)
7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1-3학년)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3권) (4-6학년) 말하기·듣기·쓰기, 읽기(2권)
2007 개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1-3학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3권) (4-6학년) 듣기·말하기·쓰기, 읽기(2권) (1-6학년) 2012년 합본 예정 듣기·말하기·쓰기, 읽기(2권)
2011 개정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국어, 국어 활동

4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는 통권 <국어>로 개발되었는데, 이 시기의 국어 교육은 주로 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음성 언어, 작문을 소홀히 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5차 교육과정기부터는 ‘1교과 다책’ 정책으로 언어 기능별 교과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분권 교과서가 등장한 이유는 교과서가 지나치게 두꺼워질 경우¹⁾에 생기는 국어 교수·학습의 문제를 극복하고, 언어 기능

1) 교과서 두께는 교과서 외형 체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은 주당 7시간(1, 2학년), 6시간(3~6학년)으로 다른 교과목에 비해 국어 교과서가 두꺼워질 가능성이 높다.

을 균형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언어 영역 간의 분리를 고착화하게 된 점, 학습 요소 측면에서 영역별 교과서간에 유사한 학습 요소의 중복, 제재 활용 측면에서 유사 제재의 중복, 제재 공유의 비효율성, 짧은 제재 수의 증가로 긴 호흡의 텍스트 읽기의 기회 부족, 언어 기능별 교과서 명칭으로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의 통합 미흡, 문학 감상과 창작의 분리, 문법 학습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합 교과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기반에는 국어 능력은 본질적으로 분절되어 있지 않으므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통합적으로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제가 있다. 최미숙(2006)은 단일본을 제안하였고, 이주섭(2007), 노명완 외(2010)에서는 분량 부담을 고려하여 시기별 단일본 <국어 가>와 <국어 나>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이루어진 국어 교과서 정책 연구 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2011년 개정 국어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국어>, <국어 활동>의 2권 체제로 고시되었다.²⁾ 이처럼 교과서 외적 체제는 교과 내적 논리보다는 외적 논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교과서 공모에 맞추어 두 교과서의 바람직한 연계 방식을 모색할 때이다.

그렇다면 <국어>, <국어 활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통합적 국어 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외국의 자국어 교과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 이외에서 채택하고 있는 두 권 교과서³⁾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의 두 권 교과서의 연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계

2) 최근 교과부 정책 연구(노명완 외, 2010)에서는 시기별 단행본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교과부는 1, 2학년 <통합> 교과서는 ‘월별’ 교과서 16종으로 고시하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공급 및 관리의 난점을 들어 시기별 단일본을 반영하지 않았다.

3)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이다. 초등학교에서 보조 교과서를 채택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과는 초등학교 수학(수학, 수학익힘책)과 과학(과학, 실험 관찰)인데, 여기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⁴⁾ 몇 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습 내용의 연계에 따라 ‘종속형’과 ‘병렬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종속형은 중심 교과서에 따라 보조 교과서의 내용이 결정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교과서 <문식성 공간>의 외적 체제는 본책(독본형)과 보조 교과서(워크북)을 중심으로 되어있다. 중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본책에는 글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 제재와 관련되어 학습할 수 있는 활동, 연습장, 카드 등의 보조 교과서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병렬형은 각 교과서가 모두 중심 교과서로 이들 간에 서로 영향 관계가 없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보르다스 출판사의 <새로운 프랑스어 마당(Le nouvel atelier de français)>은 중심 교과서인 <새로운 프랑스어 마당> 이외에 <프랑스어 활동>, <말하기, 읽기, 쓰기>가 시리즈로 개발되어 있으며, 각 교과서마다 병행하는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노명완 외, 2010). 각각의 교과서가 모두 중심 교과서이고, 학습 내용이 다른 교과서와 유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2007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는 <듣기·말하기·쓰기>, <읽기> 교과서는 학습 내용이 다소 다르게 선정되므로 병렬형에 속한다. 또 7차 중학교 <국어>는 읽기와 문학 영역을, <생활 국어>는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 영역의 내용 영역별로 분책되어 있고 두 교과서간 학습 내용이 서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렬형에 속한다.

두 번째, 학습 내용의 배정에 따라 ‘독립형’과 ‘상호보완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독립형은 성취기준 대부분을 특정 교과서에 배정하고, 다른 교과서에는 별도의 성취 기준을 배정하지 않는 형태이다. 특정 출판사의 2007년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성취 기준을 모두 <국어>에 배정하고, <생활 국어>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하는 방식으로 성취 기준

4) 교과서 간 내용 선정의 연계로는 ① 두 교과서간 성취 기준이나 내용 요소의 공유, ② 두 교과서간 동일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분산, ③ 두 교과서간 동일 영역 성취 기준 연계, ④ 두 교과서간 동일 제재, ⑤ 유사 장르 연계, ⑥ 두 교과서간 내용 조직 등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내용 조직의 연계로는 ① 내용 조직의 관련성, ② 내용 조직의 체계성, ③ 내용 조직의 상호보완성 등을 들 수 있다. 교과 간 연계는 주로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의 다양한 변화와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을 따로 배정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가 독립형에 해당된다. 이런 교과서는 두 교과서간의 연계 정도가 낮지만, 한 권만으로 자족성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상호보완형은 동일한 성취 기준을 두 교과서에 분산 배정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2007년 개정 중학교 교과서 대부분이 <국어>, <생활 국어> 각각에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이나 학습의 성격에 따라 내용을 분산 배정하였다. 보다 의미있는 국어 학습내용 요소나 성격의 특성 즉, 지식 대 기능, 지식, 기능, 맥락 대 실제, 혹은 원리 학습 대 적용 학습 등등에 따라 분산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종속형을 다시 보조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자율학습용’과 ‘교수·학습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율학습용은 보조 교과서의 주 사용자를 학생으로 상정한 형태이다. 초등학교 <수학 익힘책>의 경우, <수학> 교과서의 학습 내용은 유지하되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두 교과서 간의 연계가 느슨하여 주로 자습이나 가정 학습 과제로 활용되기 쉽다.

이에 비해 교수·학습용은 보조 교과서의 사용자 범위를 학생과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형태이다. 초등학교 <실험 관찰>의 경우,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가면서도 실험 형식에 맞추어 교수·학습 내용의 결과를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외의 다른 내용을 추가해 수준을 확장해 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교사의 교육적 개입으로 수업 시간에 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교과서 간의 관계는 기준 즉 학습 내용의 연계, 학습 내용의 배정, 교과서 활용 방식 등에 따라 다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11 개정 초등학교 <국어>와 <국어 활동> 교과서의 기능과 성격을 명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서는 바로 ‘2011년 개정 초등학교 국어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어 활동> 교과서는 ‘~을 보조하는⁵⁾’ 교과서로 되어있다.

5) ‘2011년 개정 초등학교 국어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을 보조하는’에서 보조의 대상을 명료화하는 일이다.

먼저, 보조 교과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개 ‘보조 교과서’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을 보조하는’ 교과서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또 다른 교과서’를 뜻한다(김은수, 2008).

전자는 특정 교과서를 보조하는 교과서를 말하며, 이러한 개념은 보조 교과서의 태생적 근거를 가장 명확하게 개념화한 것이다. 이는 하나의 독립된 교과서라기보다는 특정 교과서를 보조하여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보조 교과서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의 필요성과 더불어 지면 제약 등의 난점을 극복하고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교과서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적 의미를 보조 교과서도 동일하게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조 교과서 역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보조)되고 있는 학습 자료를 담고 있는 표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보조 교과서의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므로, 보조 교과서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조 교과서의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괄하여, <국어 활동>은 <국어> 교과서를 ‘보조하되’, 국어 학습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또 다른 교과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1년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간의 바람직한 연계 방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내용의 연계 측면에서 ‘종속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11년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는 중심 교과서인 <국어> 교과서를 본책

-
- ‘국어’ 교과서를 보조하면서 실생활 중심의 국어 활동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개발한다.
 -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다.
 -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보조하면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부 내용’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되,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정한다.

으로 하고, 보조 교과서를 <국어 활동> 내용은 <국어> 교과서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종속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학습 내용 배정 측면에서는 ‘변형된 독립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조 교과서의 개념을 ‘국어 교과서와 국어 학습’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확장한 바에 따라, 두 교과서의 학습 내용 배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어>와 <국어 활동>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두 교과서에 학습 내용을 어떻게 배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국어 학습의 총체성을 강조하고, <국어 활동>은 <국어>에서 배운 것을 내면화하고 실천하고, 해당 학년의 기초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책인 <국어> 교과서는 ‘통합학습형’으로, 보조 교과서인 ‘통합적용 활동형’으로 교과서의 성격을 규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의미있는 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서에 성취 기준을 모두 배정하고, <국어 활동>에는 <국어> 교과서와 관련 있는 내용을 배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습 내용의 배정 측면에서 보면, <국어> 교과서에 성취 기준을 모두 배정한다는 점에서는 독립형에 해당되지만, <국어 활동>에 학습 내용을 추가한다는 점에서는 ‘변형된 독립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셋째, 학습 내용의 연계가 종속형일 경우, 교과서의 활용은 ‘교수·학습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초등 국어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이므로 초등학교 교실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보조 교과서는 교육 내용의 중복성, 활용의 비효율성, 학습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통권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⁶⁾ 즉, 보조 교과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외면되고 사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어 활동> 사용자를 학생뿐 아니라 국어

6)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2권(이상) 교과서가 사용되는 교과는 총 5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이다. 그런데 2011년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총 3개 교과로, 국어(국어, 국어 활동), 수학(수학, 수학익힘책), 과학(과학, 실험관찰)이다. 기존의 도덕과의 <생활의 길잡이>와 사회과의 <사회과 탐구>는 본책에 통합되었다.

시간에 교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국어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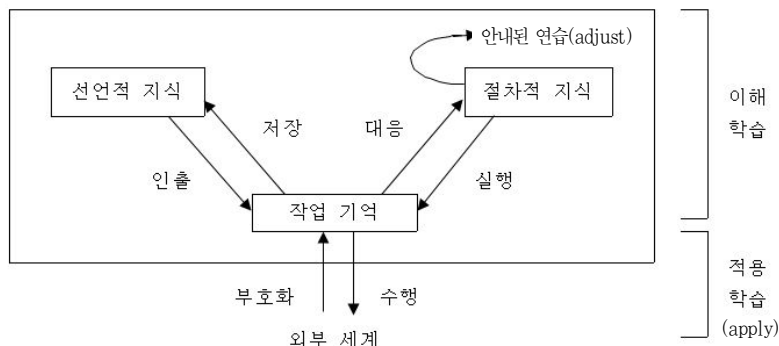
III.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단위 구성 원리

국어 교과서의 내적 체제는 국어 교과서의 체계(system) 문제로 국어 교과서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 내적 문제는 단위 구성 방식과 학습 과정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2011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의 바람직한 단위 구성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단위 구성 체계의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

국어 교육은 텍스트 생산과 수용을 목표로 한다. 텍스트 생산과 수용 능력이란 해당 텍스트 유형이 사용되는 맥락과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고 맥락에 적절하게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를 수용 및 생산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말한다.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능력은 맥락적이고 총체적이며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하는 가운데 신장된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는 지식, 기능의 이해와 이들을 적용하는 학습이 요구된다.

이해 학습과 적용 학습의 개념은 Anderson의 ACT(Adaptive Control of Thought) 산출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에서 보면, 이해 학습은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여 작업 기억을 형성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용 학습은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통합된 작업 기억을 작용시켜 언어 사용 상황에 적합한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 Anderson의 ACT 산출체계

이번에 개발될 2011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는 한 편의 텍스트 생산과 수용을 목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학습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를 생산하거나 수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2011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계의 지향점은 바로 한 편의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교과서 개발에서 단원 구성 체계의 이러한 지향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교과서 단원 학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예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도 일부 나타났다. 이런 경우가 생긴 원인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상세화 과정에서 단원 구성 체계의 지향점을 망각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2007 개정 국어 교과서는 한 편의 텍스트 생산과 수용에 필요한 지식·기능·맥락을 학습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한 편의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런데 어떤 단원에서는 개별 지식, 개별 기능의 단순 반복 학습에 그친 면이 있는데 이는 이전의 국어 교과서의 단원 전개에서 사용해 온 ‘이해 학습’, ‘적용 학습’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한 데서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단원 구성 체계의 지향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전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해 학습’과 ‘적용 학습’의 개념이 개별 지식, 개별 기능의 이해와 연습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이해 학습’과 ‘적용 학습’의 개념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림 1〉 참고). 진정한 의미의 이해 학습은 교사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학습 목표 관련 내용에 대해 학습을 하고 안내된 연습 활동을 한다. 그리고 적용 학습에서는 앞에서 배운 지식,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한편의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한다는 개념이다. 이 때 ‘앞에서 배운’의 내용의 적용은 지식, 기능의 개별 적용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를 생산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2011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단위 구성 체제로 도입, 전개, 정리의 큰 틀을 따르고, 전개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해 학습과 적용 학습의 구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단위 구성의 체제의 지향점이 한 편의 텍스트 생산과 수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 단위 구성 원리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단원을 통합 단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옳은 말이다.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해서 모든 단원을 통합 단원으로 구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해 통합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해 통합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는 다음의 전제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즉, ① 각 영역이 개별적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② 관련성, 공통점, 유사성 등이 있으며, ③ 특정 영역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적 의도와 의의가 있어야 하고 ④ 독립 지도보다 통합 지도를 할 때에 더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이다.

이상의 전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합 단위보다 오히려 독립 단위 구성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칫 독립 단위보다 통합 단위만으로 구성하면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합 단위이라는 이유로 유의미한 학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단위 구성 체계가 유의미한 학습을 보장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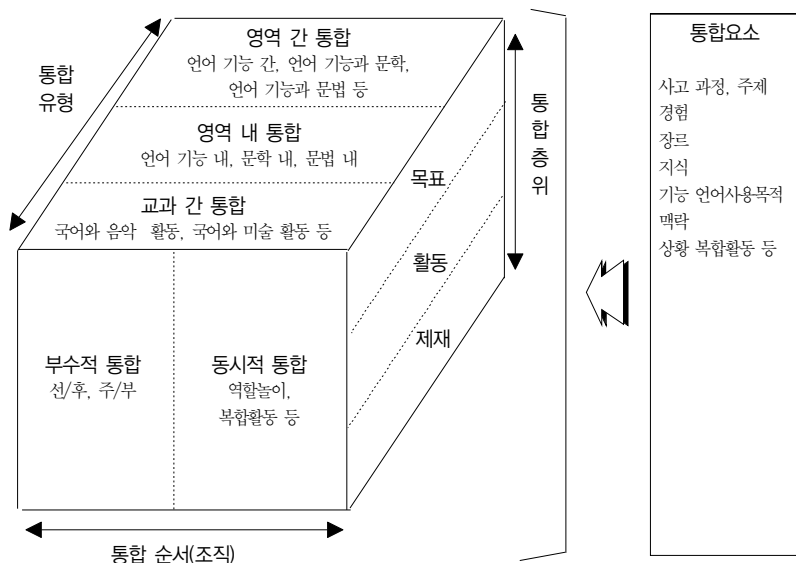
적 국어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단위 구성은 학습의 성격에 따라 통합 단위와 독립 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제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통합 단위 구성에서 고려할만한 통합의 원리를 들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통합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통합 단원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령, 통합 단위 구성에서 만약 ‘기행문 장르(통합 요소)’,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 통합(통합 유형)’, ‘단원 목표(통합 반영 층위)’의 통합 기제를 반영한다면, 단위 목표로 ‘견문과 감상을 이해하며 기행문을 읽고, 쓸 수 있다’를 설정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통합 단위 구성도 가능하다. 가령, 하나의 통합 원리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만약 통합 요소로 장르와 언어 사용 목적 두 가지를 선정한다면 학습 내용으로 ‘정서표현의 기행문 읽기와 기행문 쓰기’에 초점을 두고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

통합 단위 구성에서 고려할 통합 원리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통합 기제

첫째, 통합의 반영 층위의 원리이다. 통합의 반영 층위에는 목표 층위, 활동 층위, 제재 층위가 있다. 목표 층위는 단원 목표, 차시 목표에, 활동 층위는 차시의 다양한 활동에, 제재 층위 주로 공통되는 다양한 장르로 반영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통합 유형의 원리이다. 통합 유형으로는 교과 간 통합과 교과 내 통합으로 크게 나뉜다. 교과 내 통합은 영역 간 통합과 영역 내 통합으로 나뉜다. 국어과에서는 주로 교과 내 통합이 많지만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적 영역에서도 국어과와 통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확장 학습에서 이를 실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과 간 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과 내 통합에서 영역 간 통합은 주로 국어 교과내 언어 기능 간의 통합이 많지만 언어 기능과 통합, 언어 기능과 문법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영역 내 통합은 동일 영역 내의 통합을 일컫는다. 즉 동일 언어 기능 간, 문학 간, 문법 간의 통합을 말한다. 가령, 읽기 지도에서 철자나 어휘, 문장, 문단, 글의 구조 등을 최대한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형태이다.

셋째, 통합 순서의 원리이다. 통합 순서의 원리에는 부수적 통합과 동시적 통합이 있다. 부수적 통합은 두 가지 언어 기능이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어느 한 기능에 다른 기능을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읽기 후 쓰기’, ‘쓰기 후 읽기’ 활동이 해당된다. 또한 동시적 통합은 언어 기능들이 동시에 함께 지도되어 어느 기능이 우선이라 할 수 없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복합 활동인 역할놀이, 독서클럽, 쓰기 워크숍 등은 어떤 특정 기능이 우선되지 않고 복합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넷째, 통합 요소의 원리이다. 통합의 대상이 되는 통합 요소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고 과정, 주제, 경험, 장르, 지식, 기능, 언어사용 목적, 맥락, 상황, 복합 활동 등이 있다.

V. 결론

2011년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는 <국어>, <국어 활동>으로 고시되었다. 지난 30여 년 간 언어기능별 분책 교과서를 사용해 온 점에서 볼 때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그만큼 이번 교과서 개발에서 통합적 국어 교육의 관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2011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에서 통합적 국어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국어>와 <국어 활동>의 연계 방식과 통합적인 국어 교육을 위한 단위 구성 원리를 탐색하였다.

2011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 언어의 총체성, 언어 사용의 실제성이 반영된 통합적 국어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2011 개정 교과서 <국어>와 <국어 활동>의 연계 방식은 ① 학습 내용의 연계 측면에서 ‘종속형’으로, ② 학습 내용 배정 측면에서는 ‘변형된 독립형’으로, ③ 보조교과서의 활용 측면에서는 ‘교수학습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단위 구성 방안으로는 한 편의 텍스트 생산과 수용을 지향하는 교과서 단위 구성 체계의 지향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의 성격에 따라 통합 단위와 독립 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교육에서 통합적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통합에의 요구와 학습자 중심 교육, 총체적 언어 교육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통합 교과서인 만큼 면밀한 계획 하에 시작해야만 이후의 통합적 국어 교과서의 바람직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새 교과서에 통합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1. 10. 05.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노명완·이순영·정혜승·옥현진·조재운(2010), “초등 국어 교과서 내·외형 체제 선진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명순(2004), “독서 작문 통합 지도의 전제와 기본 방향”, 『독서연구』 11호.
- 김봉순(2004), “독서와 작문 지도의 전망”, 『독서연구』.
- 김은수(2008), “『생활의 길잡이』 내용 구성 및 기술 방향 연구”, 『윤리교육연구』 17집.
- 김정우(2009), “‘국어’ 교과서의 영역 통합 양상 분석 :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2호, 한국독서학회.
- 김주환(2010),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합성 연구”, 『새국어교육』 85호.
- 이경화(2010), “초등교사의 국어 교과서 이해 양상”, 『초등국어교육』 43집.
- 이상구(2007), “국어 교과서 단원 설계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35집.
- 이수진(2006), “국어과 주제중심 통합 단원의 개발 방안 탐색”, 『국어국문학』 145집.
- 이재승(2006),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 31집.
- 이주섭(2007), “초등 국어 교과서의 분책 방식과 단원 구성 방식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33집.
- 임미성(2002), “통합적 국어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성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21집.
- 신헌재(2009), “초등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현 방안 : 초등 국어교과서 개발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 신헌재·황정현 외(2011), 『초등 국어교과서 개발 과정과 전망』, 미래엔.
- 신헌재·황정현 외(2009),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실험본(합본) 국어 교과서 <듣기·말하기·쓰기> 개발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 정혜승(2006), “좋은 국어 교과서의 요건과 단원 구성의 방향”, 『어문연구』 34권.
- 천정록(2009), “읽기와 쓰기의 통합 단원 개발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39집.
- 최미숙(2006), “제7차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27집.
- 최지현(2010), “2007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검정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새국어교육』 85호.

<초록>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초등 국어교과서 개발 방안

이경화

이번에 고시된 201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국어>, <국어 활동>은 지난 30년간 사용해온 언어 기능별 분책 교과서와는 다른 외적 체제이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로 폭넓은 의미의 통합의 관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통합적인 국어교육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통합적인 국어 교육을 위한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는 다음과 같다. <국어>, <국어 활동>의 두 권 교과서의 관계는 학습 내용 연계 측면에서는 ‘종속형’으로, 학습 내용 배정 측면에서는 ‘변형된 독립형’으로, 보조교과서의 활용 측면에서는 ‘교수학습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적인 국어 교육을 위한 내적 체제로는 도입, 전개, 정리의 큰 틀 하에 전개 학습은 지식, 기능의 이해와 안내된 연습을 하는 기본 학습, 실제로 필요한 지식·기능의 통합적 의미의 발전 학습, 소통하는 확장 학습으로 이어진다. 이들을 구현하는 통합 원리의 복합적인 선택과 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국어 교육에서 통합적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통합에의 요구와 학습자 중심 교육, 총체적 언어 교육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통합 교과서인 만큼 면밀한 계획 하에 시작해야만 이 후의 통합적 국어 교과서의 바람직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새 교과서에 통합의 의의를 잘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핵심어】 통합적 국어교육, 종속형, 변형된 독립형, 교수학습용, 통합 원리

<Abstract>

The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2011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Integrated Language Arts

Lee, Kyeng-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thod of integrating language arts in <language>, <language activities> korean language textbook development which are issued by the 2011 revised elementary textbook.

The <language> and <language activities> which are revised in elementary korean language textbook this time are epoch making changes.

At this revised textbook, more broaden type of integrating language arts approach is required. So, I suggested external and internal structure which is need to reflect the integrating language arts approach regularly.

For the external structure of integrating language arts, it is desirable that <language> <language activities> are structured as 'dependent type' in content connection, as 'transformational independent type' in content apportionment and 'teaching and learning type' in the use of the supplement textbook.

For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integrating language arts, the realization of the understanding learning, applying learning and integration principle is essential.

In Korean language arts, the integrating language arts is epoch paradigm. I sincerely hope the successive research which can support the meaning of the integrating language arts in new textbook.

[Key words] integrating language arts approach, dependent type, transformational independent type, teaching and learning